

# 高麗磁器와 中國磁器의

## 比較研究

### —高麗時代 純靑磁와

### 中國陶磁의 比較—

金 英 媛

#### I、序 論

토기에서 도자기로의 혁신적인 변화는 재료와 製陶術의 발달, 가마구조의 향상, 그리고 釉藥의 발견 등에 기인한다. 여기서 유약의 발견은 중국도자기에 있어서 土器 혹은 炆器의 단계로부터 磁器로가는 지름길을 터주었으며, 低火度釉가 아닌 高火度釉의 발견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중국에서의 유약의 발견은 이미 商代에 이루어졌고,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의 유약은 신라도기에서 볼 수 있으니 중국과는 엄청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다. 이렇듯 중국에선 商代의 施釉陶를 토대로 하여 原始靑磁가 出現하였고 後漢末에는 浙江省越州窯에서 古越磁가 제작되기에 이르렀다. 그후 六朝時代의 일주요 청자는 靑磁로서 釉色은 갖추게 되고 華北지방에서는 越州窯의 영향으로 稚拙한 단계의 靑磁제작에 들어갔다.

고려시대의 청자는 그 발생기부터 三國시대에 流入된 중국六朝청자의

영향과 그 이후 唐·五代·宋代陶磁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고려청자에 나타난 중국적인 도자요소의 有無를 기준으로 대체로 前·中·後의 三期로 구분하고자 한다. 여기서 前期는 고려청자의 발생에서부터 절정에 이르는 一·二세기 전반기까지의 純靑磁시대이고, 中·後期는 十二세기 중엽 이후의 象嵌靑磁시대이다. 다시 중기는 一·二세기 중엽 이후의 세련된 상감청자시기와 그 세련미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十三세기 전반기까지이며, 후기는 상감청자 衰退期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대구분 속에서 전기의 순청자시기와 후기의 상감청자 쇠퇴기에 중국도자양식이 새롭게 수용되었다고 보아지며 이에 비해 중기에는 중국도자요소보다는 고려적인 특징이 청자에 강하게 드러난다고 이해된다.

그러므로 本稿에선 前期의 고려청자, 즉 발생기에서 절정기까지의 純靑磁에 국한하여 중국도자양식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그 양식적인 특징을 비교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앞서 중국도자요소가 순청자에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역사적인 배경과 우리나라에 유입된 중국도자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고찰을 함에 있어서, 최초의 고려청자에서부터 중국적인 특징이 발견되므로 소위 중국식 고려청자의 발생, 즉 고려청자의 기원에 관한 문제와 당시의 역사적 배경 등을 우선적으로 概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II、고려 純靑磁의 발생

—중국陶磁와 製陶術의 流入—

##### (一) 고려청자의 발생에 관한 諸說

前期의 純靑磁시대를 開幕하는 靑磁의 발생에 관한 문제는 학자들간에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크게 九세기에서 一〇세기 초경으로 그 발생시기를 잡고 있는데, 주목되는 몇가지

학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崔淳雨·鄭良謨를 주축으로 하는 국내학자들은 울릉도·천부동·출토의 통일신라시대 土器廣口瓶의 예들과 인천·경서동·출토의 綠靑磁片들과의 比較를 통해 綠靑磁로 대표되는 초기청자는 통일신라도기의 기형을 계승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高火度燻造技術이 축적되었다 할지라도 청자를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도자기와 그 製陶術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고 우리의 축적된 토기제작기술에 의해 이루어진 청자의 발생연대를 崔淳雨는 九세기 말 十세기 초<sup>①</sup>, 鄭良謨는 九세기 초까지 올려보고 있다.<sup>②</sup> 특히 鄭良謨는 九세기 초·중반의 綠靑磁시기를 제 1단계, 그 다음으로 越州窯式 해무리굽과 無文의 청자시기를 제 2단계, 제 2단계와 거의 同樣式이며 陰刻菊唐草文이 있는 청자시기를 제 3단계, 臨汝窯·耀州窯와 흡사한 寶相唐草文, 牡丹唐草文, 草花文 등의 押出文이 있는 청자시기를 제 4단계로 보았다. 여기서 제 4단계는 九세기 말부터 十一세기 중엽까지로 설정했다.<sup>③</sup>

이와같은 國內說에서 다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綠靑磁의 編年에 관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綠靑磁를 세련된 월주요식의 청자가 出現하기 이전 단계에 놓았으나 앞으로 再考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sup>④</sup>

한편 일본학자들은 고려에서의 청자발생은 중국도자기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三上次男은 고려청자·백자·褐釉陶器의 原型은 중국도자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이다.<sup>⑤</sup> 그는 이에 대한 정치·경제적 배경으로 통일신라시대 九세기 전반의 海上活動을 언급하였다.<sup>⑥</sup> 즉, 九세기 후반기에는 통일신라가 정치적·사회적으로 불안정하여 고급자기의 국내생산이 곤란하게 되었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자기가 사용되었으나 十세기 전반기에는 고려의 건국으로 정치·사회의 안정, 도자기 수요의 급증현상이 일어나 국내생산이 시작되었다 한다.<sup>⑦</sup> 이러한 三上의 견해를 요약해 보면, 九세기 전반기 장보고 시절에는 중국식의 청자생산을, 十세기 전반기에는 고려청자의 燻造를 시사하고

있다.

吉岡完祐는 통일신라의 현덕왕(八〇九?八二六) 이후의 정치·사회적 인 상황과 관련하여 越州窯風 靑磁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다. 즉, 현덕왕 이후 流民 혹은 노비가 된 民衆들이 절강성에 흩러들어가 窯業에 종사하다가 唐정부의 「新羅人奴婢解放令」<sup>⑧</sup> 등에 의해 자유인이 되었다 하며, 그들은 당시 활약하던 장보고에 의해 우리나라 전라도의 龍雲里 窯로 이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吉岡은 이 龍雲里窯와 고려청자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고려건국 직후 고려에서 제작된 청자의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므로 一〇세기 전반에 월주요청자를 수입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sup>⑨</sup>

이상의 諸說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월주요청자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월주요품의 청자의 編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또한 九세기 전반의 장보고 海上활동시기에 월주요의 製陶術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渡來한 陶工들에 의한 월주요품의 청자제작에 대한 신빙성도 상당히 높혀 주고 있다. 또 前代부터 이미 수입되었던 중국도자는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으며, 여러 고분이나 寺址 등에서 출토되는 중국도자는 고려청자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므로 다음章에서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 (二) 우리나라 출토의 중국陶磁

三國시대에서 고려 초기까지 우리나라에 流入된 중국도자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예들이 주목된다. 六朝時代 靑磁로는 강원도 법천리에서 초기 百濟土器와 伴出된 靑磁羊, 충남 천원군 화성리에서 靑磁鐵斑文 壺, 충남 공주 무령왕릉에서 靑磁有蓋四耳壺, 그리고 夢村土城에서 靑磁片 등이 출토되었다. 이와같은 六朝靑磁들은 삼국시대의 우리나라 도자기에 영향을 주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 고려 靑磁와 연결되는 것은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들어온 중국 唐·五代·宋代의 도자기들이다.

통일신라에서 고려초에 걸쳐流入된 중국도자기들의 일부를 소개하면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白磁와 越州窯靑磁 銅官窯雙耳壺, 경주 조양동출토 唐三彩三足壺(甗), 경북의 성출토 唐三彩枕, 仁川부근에서 발견된 越州窯靑磁注子 그리고 傳 龍媒島출토 銅官窯注子 등이 있다. 이 중국도자들을 종류별로 보면, 唐三彩, 白磁, 越州窯靑磁, 銅官窯磁器 등인데, 이 외에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중국도자로는 耀州窯靑磁, 定窯의 黑釉와 柿釉, 磁州窯의 白地黑花, 景德鎮窯白磁들도 있다.

고려시대의 靑磁는 器形, 文樣, 構圖, 甗의 형태, 釉色 등이 越州窯靑磁와 매우 흡사하며, 일부 耀州窯靑磁와 有關한 樣式도 散見된다. 그리고 定窯나 景德鎮窯白磁의 器形과 文樣만을 모방한 고려청자의 예들도 있다. 그리고 고려의 鐵繪靑磁 가운데는 磁州窯 도자기의 樣式的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 주목된다. 이외에도 梨大소장의 「淳化四年」銘항아리같은 예는 현재 靑磁인지 아니면 白磁인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十세기에 이미 무역자로서 기반을 갖춘 長沙 銅官窯 黃釉磁器의 영향에 의한 제품이라는 說도 있다. ⑩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출토의 중국도자기로서 고려 前期의 靑磁와 관련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六朝시대부터 宋代까지 모두 분포된다. 실제 晚唐에서 宋에 걸친 도자기가 고려순청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해도 그 祖形은 이미 六朝靑磁에서 발견되는 예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三國時代부터 중국의 도자기와 접할 수 있었고, 이렇게 수입된 중국도자기들이 통일신라 말의 고려 청자 발생에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청자는 중국식이었을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려시대 前期의 靑磁는 앞에 소개한 중국의 여러 가마 중에서 浙江省越州窯, 陝西省耀州窯, 河南省臨汝窯, 河北省定窯, 江西省景德鎮窯의 도자기와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여진다. 이들窯에서 만든 도자기와 고려 靑磁의 유사성은 樣式的 比較 검토에 의해서 뿐 아니라 文獻上的 記錄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文

獻에 나타난 兩國도자기의 관계는 徐兢의 『宣化奉使高麗圖經』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점은 필자에 의한)

「陶器色之靑者 麗人謂之翡色 近年以來制作工巧 色澤尤佳 酒尊之狀如瓜 上有小蓋……皆竊放定器制度……」

「發見出香亦翡色也：諸器惟此物最精絕 其餘則越州古秘色 汝州新窯器 大概相類」⑪

이 두 기록은 중국과 고려도자의 比較에 매우 중요한 文獻資料이다. 以上の 『高麗圖經』의 내용과 우리나라에서 六朝時代以來 隋・唐・五代・宋의 陶磁가 出土되기까지의 역사적인 배경 등을 토대로 하여 六朝陶磁의 전통을 이은 唐・宋代 陶磁와 고려 前期의 靑磁의 양식비교에 들어가고자 한다.

### Ⅲ、靑磁와 越州窯靑磁와의 비교

#### (一) 越州窯와의 관계

後漢末에 이르러 浙江省 越州지방에 있는 여러 가마에서는 殷・周代의 灰釉陶에서 발전한 靑磁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이 浙江省越州窯의 靑磁는 六朝時代 末頃에는 華北지방에서까지 제작되었으며, 隋代에는 중국全域에서 靑磁를 만들었다. 唐以前에는 德清・九巖이 중심이 되는 靑磁가 마였으나, 唐代에 들어서면서부터는 余姚縣上林湖畔과 鄞縣이 중요한 가마로 浮上되어 세련된 唐代의 越州靑磁를 생산했다.

越州窯靑磁의 器形은 鉢, 盒, 瓶, 注子로 등 다양하며, 이 가운데 鉢들의 기형과 장식은 당시의 銀製品을 조형으로 하고 있다.

唐・宋代에 걸쳐서는 溫州를 비롯한 越州窯 주변에 많은 지방에서 越州窯靑磁를 모방했으며, 中唐부터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멀리 페르시아와 이집트 등지까지 수출되었다.

우리나라와 越州窯와의 관계도 긴밀하여 통일신라 말까지 저슬러울

라간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중국 唐과의 사이에 朝貢무역이 성행하였으며, 또 많은 신라 商人들은 華北지방에서 商業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九세기 전반에는 장보고가 전남 강진군 완도를 근거지로 하여 淸海鎭대사로서 활약하였고, 신라와 唐 사이의 교류는 더욱 긴밀해졌다. 그런데 장보고가 활약하던 시기에 越州窯靑磁를 비롯한 浙江省 수출품의 積出港이었던 明州(寧波)는 신라 商人의 중요한 활동근거지였다.

한편 현덕왕 이후 불안한 사회 속에서 流民화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절강성으로 들어가서 월주요역에서 도자기 제작기술을 익혔고, 이들은 중국에서의 「新羅人奴婢解放令」 등으로 자유인이 된 후 장보고의 활약 시기에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그러므로 이들에 의해 전라도 龍雲里窯에서 최초의 청자가 만들어졌다는 한설이 앞서 소개된 바 있다.<sup>12)</sup> 그리고 明州와 海路로 최단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전라도 강진이므로 이곳에 越州窯의 製陶術이 들어왔을 가능성은 더욱 높은 것이다.<sup>13)</sup> 이때 만들어진 청자는 아마도 중국 越州窯風의 靑磁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 후 一〇세기 전반까지는 대체로 국내생산이 수요에 응하지 못하여 晚唐五代의 월주요청자가 수입되었으리라고 보여진다.

그한 예로서 光宗(在位·九四九~九七五)이 元宗大師에게 하사하였다는 金鈿瓷鉢이 있다.<sup>14)</sup> 이 金鈿瓷鉢은 아마도 五代에 유행했던 口緣을 금속으로 장식한鉢의 일종으로 생각되며, 口緣에 금테두리를 씌운鉢을 말한다. 그러니까 十세기 중후반기의 고려에선 이와 같은 자기의 생산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해 온 자기였다고 믿어진다. 口緣에 금속테를 씌운 罍이나鉢 종류는 定窯나 越州窯에서 흔히 만들어졌다. 특히 金을 씌운 罍에는 「金鈿越器」라는 명칭이 『宋史』 『宋會要』 『吳越備史補遺』 등에 전하는 것으로 미루어 越州窯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吳越國이 亡한 그 이듬해인 太平興國四年(九九七) 吳越王 錢俶은 宋王室에 신하의 禮를 갖추며 진기한 물건들을 상납하는데, 이 건물 중 口緣에 金테두리를 한 靑磁鉢 150點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元宗大師가 하사받은 金鈿瓷鉢은 당시에 이미 절정에 달했던 五代

越州窯의 靑磁金鈿鉢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二) 純靑磁에 나타난 越州窯樣式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越州窯靑磁는 여러 점에 이르고 있다. 九세기 초의 것으로는 경주 배리출토 雙耳壺와 同伴한 靑磁罍이 있다. 이 罍은 骨壺의 뚜껑으로 사용되었으며 굽은 전형적인 唐末의 越州窯靑磁에 나타나는 해무리굽이다(圖 1) 그리고 부여 부소산성山麓에서 발견된 越州窯罍 두점 가운데에도 해무리굽이 한점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초기의 월주요청자들의 공통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굽의 한 형식인 해무리굽에서 찾을 수 있다.

해무리굽은 중국에서 六朝末~初唐에 나타나서 八~九세기 전반기에 유행하던 형식이며 十세기 이후로는 쇠퇴한다. 우리나라에서 해무리굽의 출현 시기에 대해선 중국에서의 유행 시기였던 八~九세기경이라는 주장이 있다.<sup>15)</sup>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안압지에서 출토한 盛唐期의 越州窯靑磁罍과 八세기의 邢窯白磁罍의 굽이 각각 해무리굽형식임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해무리굽의 수입 시기는 八세기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퇴조 시기는 十一세기 전반경<sup>16)</sup> 혹은 十二세기 초<sup>17)</sup>라는說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해무리굽은 약간의 형식변화를 보이는데, 전형적인 해무리굽과 변형해무리굽의 先後관계라든가 지역간의 변화 등에 관하여는 아직 불분명한 단계이다.

월주요형식을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굽에서부터 口緣에 이르면서 斜面으로 곧게 뻗는 소위 直口式의 罍에서 보여진다. 이러한 直口式 罍은 唐末 중국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越州靑磁에서는 물론 邢窯白磁 등에서 그 예가 발견된다. 直口式이면서 해무리굽을 한 罍으로서 廣州建設新村에서 발견된 大中十一年(八五七)의 姚氏墓出土 白磁鉢이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罍이나鉢들은 당시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sup>18)</sup>이나 東南아시아, 그리고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발견됨으로써 九세기 말 十세기 초의 무역자로서 중국으로부터 해외 여러 지역으로 널리 수출되었

던 사실이 밝혀졌다.

前期의 고려 靑磁가운데 直口에 해무리굽이 있는 형식으로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靑磁罍이 있다. (圖 2) 해무리굽의 안바닥에도 유약을 입혔으며 耐火土반침 자국이 굽바닥에 남아 있다. 胴體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굽에서부터 口緣으로 斜面을 이루며 뻗어나간다. 이와 같은 기형은 고려 백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圖 3)

월주요양식은 기형과 굽의 형태 외에도 문양에서도 빈번히 나타난다. 월주요청자와 고려 靑磁에 함께 나타나는 文樣素材는 雙鳳文, 雙鸚鵡文, 寶相華唐草文, 波濤文, 蓮瓣文, 龍文 등이다. 월주요양의 문양을 지닌 예들로는 靑磁龍文梅瓶에서의 飛龍文(圖 4), 蓮唐草文(圖 5), 그리고 靑磁雙鸚鵡文鉢(圖 6) 등인데, 특히 맨마지막의 앵무새무늬의 빠른 필치는 완전한 월주요식이다(圖 7).

그리고 國立中央博物館소장의 靑磁蓮瓣文鉢(圖 8)은 굽에서 口緣까지 부드러운 曲線을 그리고 있어 종래의 直口式이 아닌 北宋代 靑磁의 기형을 보여 준다. 內面은 無文이지만 外側面은 陽刻蓮瓣文으로 장식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두드러진 陽刻蓮瓣文은 五代 浙江省鄞縣窯에서出土된 靑磁片에서 비슷한 수법을 볼 수 있다. (圖 9-1) 그리고 北宋代의 越州窯靑磁나 定窯白磁에서도 이용되던 장식이며, 越州窯의 靑磁蓮唐草文唾壺(圖 9-2)의 外側面에서도 同一양식의 蓮瓣文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월주요식의 문양으로서 口緣部를 제외한 內底面과 內側面에 걸쳐 牡丹折枝文을 대담하게 배치한 靑磁牡丹文花瓶鉢(圖 10)이 주목된다. 이鉢은 五代에 유행하던 花形그릇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서 內底圓을 분명히 갖추었으나 內底圓만의 문양이 단독으로 배치되지 않고, 側面에서 연결되는 하나의 畫面으로서 이용된 점이 매우 특이하다. 이와 같은 靑磁片이 浙江省余姚縣 上林湖畔의 越州窯址에서 出土되고 있다. ⑩

前述한 내용과 같이 월주요와 고려 靑磁와의 관계는 크게 기형, 굽의 형식, 문양素材와 構圖, 施文技法 등에 있어 매우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한 양식을 보임으로써 매우 밀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本稿

에선 월주요식, 월주요품 혹은 중국식의 靑磁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靑磁의 필주조전인 釉色에 있어서도 고려靑磁는 越州窯靑磁와 연결되는 文獻記錄을 남기고 있다.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고려청자의 색을 고려인은 翡色이라 했고, 그 翡色은 越州窯의 古秘色을 닮았다고 했다. ⑪ 이것은 宋代의 徐兢이 十二세기 전반기의 靑磁를 보았을 때, 그 釉色이 매우 아름답고 세련되어 越州窯靑磁의 釉色이 절정에 달했던 唐宋·五代의 秘色에 비유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고려 靑磁와 중국 越州窯靑磁의 양식을 간략히 비교해 보았다. 越州窯靑磁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적 배경, 고려靑磁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우리나라 출토의 월주요청자, 그리고 고려 靑磁와 월주요청자 사이에 발견되는 여러가지 공통점 혹은 유사성 등으로 미루어 고려시대 前期의 靑磁는 그 발생기부터 월주요와 不可分의 관계 속에서 맺어졌다고 할 수 있다.

#### IV, 靑磁와 北方靑磁인 耀州窯·汝窯靑磁와의 比較

지금까지 고려청자에 나타난 중국도자의 영향을 고찰함에 있어 浙江省 越州窯靑磁와의 관계를 크게 부각시켜 왔고, 이에 反해 河南省汝窯나 陝西省耀州窯에서 제작된 소위 北方靑磁와의 관계에 대해선 다소 소홀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 現存하는 고려靑磁들의 樣式을 分析해 볼 적에 越州窯靑磁의 要素가 支配의이지만 그 일부에선 北方靑磁의 要素도 나타나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耀州窯靑磁의 영향이며 극히 적은 부분이나마 汝窯의 영향도 있다고 본다. 이에 耀州窯와 汝窯 그리고 靑磁와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耀州窯와 汝窯는 北方靑磁를 대표하는 가마로서 이 두 가마에선 十世紀 후반경 宋初에 華南의 越州窯와 形態·文樣·釉藥을 달리하는 靑磁가 燒成되기 시작했다. ⑫ 이 두窯에 대한 조사가 몇 차례에 걸쳐 행해

졌지만, 汝窯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단계이다.

### (一) 耀州窯

耀州窯는 一九五八年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西安研究室에 의해 발굴조사된 이래 一九六五년에는 報告書가 간행되어<sup>25)</sup> 비교적 실상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陝西省銅川市에 있는 耀州窯는 晚唐에 開窯하여 黃色 혹은 淡青色을 띠는 靑磁를 小量生産했으나 開窯당시부터 五代까지의 主生産品은 黑釉와 白釉陶였다. 그리고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아름다운 刻花文의 耀州窯靑磁는 十세기 말 北宋代에 들어와서 제작된 것이다.

北宋代의 독특한 耀州窯靑磁는 胎土가 灰色이며 그 질에 있어서 粗質과 良質로 구분된다. 良質의 것은 器壁이 얇고 口緣은 약간 外反된 것이 많다. 유약은 광택이 좋으며 투명도가 높고 기포가 없다. 또 유약에 함유되어 있는 소량의 酸化鐵이 환원염소성되어 釉色이 좋다. 그러나 粗質品이나 후기의 것들은 器壁과 釉層이 두껍고 水裂이 많다. 환원염소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釉色은 칙칙하며 黃綠色이나 褐綠色을 띠는 예가 많다. 文樣은 刻花文이거나 陶型을 이용한 押印文이 있는데, 刻花文은 浮彫와 같은 느낌을 주도록 깊고 예리하게 파서 소위 片切彫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 이 片切彫의 刻花文은 晚唐五代에 시작되었는데 특히 五代에 吳越國의 보호하에 있던 越州窯에서 透刻文과 함께 시작되었다.<sup>26)</sup> 이러한 耀州窯靑磁의 刻花文은 晚唐五代의 越州窯靑磁에서 나타난다. 刻花文의 영향을 받았고<sup>27)</sup> 그것이 새롭게 變形되어 耀州窯의 전형적인 문양이 된 것 같다. 耀州窯靑磁刻花文에 대한 일주요의 영향 을 시사하는 예들로 浙江省黃岩窯에서 채집된 北宋代의 靑磁刻花文片과 靑磁刻花文盤片(圖 11)들이 있어 注目되고 있다. 이片들의 문양은 대담하면서 生動感있게 표현되었으며, 粗質이어서 民間用品으로 생 각되고 있다. 그리고 釉色에 있어서도 黃綠色을 띠고 있어 耀州窯靑磁 와의 유사성을 보여 준다.<sup>28)</sup>

그런데 十二세기 초 北宋末이 되면 押印文이 도입되어 耀州窯靑磁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이 押印文은 陶型을 이용한 것이지만 매우 섬세한 수법에 의해 施文된 것이므로 刻花文처럼 보이는 예도 있다. 耀州窯에서의 押印文의 도입은 北宋末 華北지방의 정치·사회적인 變化속에서 간편한 施文방법의 채택과 그로 인한 大量生産을 목적으로 한 것 이라고 생각된다.

耀州窯靑磁의 文樣素材로는 蓮唐草, 牡丹唐草, 菊唐草, 波魚, 蓮池와 물오리, 鶴, 나비, 飛天, 새, 童子 등이 있다. 구도는 처음에는 中心으로부터 시작되어 側面에 돌아가면서 施文되었으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側面을 여러면으로 구획하여 각면에 모양을 배치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耀州窯靑磁의 문양과 구도는 고려 靑磁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있고, 드물게 요구요청자와 유사한 釉色을 보이는 예도 있다.

### (二) 汝窯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汝窯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조사가 불충분하여 더욱 체계적인 발굴조사와 연구성과를 기대해야 한다. 더우기 종래에는 汝窯와 耀州窯의 청자가 제대로 구별되지 않았던 것 같고, 지금도 汝官窯靑磁에 대해서만 이해되고 있을 뿐이다.

宋代의 詩人 陸遊는 그의 『老學庵筆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26)</sup>

「北宋末頃 나타난 定州白磁는 口部가 거칠므로 支配계층이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汝州에 磁窯를 축조하여 靑磁를 만들 것을 命했다. 이로써 후에 汝窯라고 부르는 窯가 축조되었고, 宋代 사람들은 北方系 靑磁 중에서는 汝窯靑磁가 質의 優라고 칭하고 평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汝窯는 定窯白磁가 생산된 이후인 北宋末頃 부터 製陶를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現在 文獻에 전하는 汝窯靑磁는 三〇점 정도에 불과하다. 胎土는 精選되어 淡黃色을 띤다. 汝窯靑磁의 특징은 불분명하여 약간 흰색이 도

는 灰青色의 유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綠色이 도는 보통 靑磁의 색과는 전혀 다르다. 이와 같은 독특한 釉色은 釉藥에 長石分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施釉할 때는 두 번 세 번 유약을 덧바르기 때문에 釉層이 두껍고, 따라서 氷裂이 있다. 유약은 그릇의 굽안바닥에까지 입혀져 있고, 굽안바닥에 흰색의 받침자국이 세군데 혹은 다섯군데 붙어 있다. 중국인들은 이것을 「참깨씨자국」이라 부른다.<sup>27)</sup>

汝窯靑磁의 문양에 대해선 刻花文은 없고 押印文만 있다는 馮先銘의 견해가 있다.<sup>28)</sup> 그리고 器形은 鉢·盃·접시류와 托鉢 등이 있는데, 托鉢은 금속제품이나 木漆製品에서 유래한 형태들이 많다.

지금까지 河南省臨汝縣의 窯址에서 耀州窯樣式의 靑磁가 多量으로 발견되었으므로 많은 학자들은 종래 汝窯靑磁를 耀州窯靑磁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一九五〇年代의 본격적인 耀州窯발굴조사 이후 汝窯에서 발견된 靑磁片들은 倣耀州窯靑磁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다.<sup>29)</sup> 따라서 北宋代의 耀州窯는 방대한 窯系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三) 純靑磁에 나타난 北方靑磁樣式

純靑磁와 耀州窯와의 관계에 대해 文獻에 보이는 記錄은 없으나, 汝窯와의 관련성에 관하여는 뚜렷한 記錄으로 傳해오고 있다. 그것은 앞서 이미 인용해 온 『高麗圖經』의 「汝州新窯器」<sup>30)</sup>와 대개 유사하다는 내용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靑磁唐草文盞과 盃이 耀州窯양식을 반영한 예로 소개되고 있다. (圖 12) 이 盞의 內面과 盃의 밑좌外面에는 耀州窯風의 唐草文이 刻花되어 있다. 특히 盞의 경우 文樣은 둥글둥글 돌아가는 줄기를 지닌 唐草文으로 요주요와 같은 형식이다. 內面的 構圖는 內底中央에 菊花文 하나를 두고 側面에 돌아가면서 리드미컬한 唐草文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耀州窯특유의 구도를 보여준다. 施文技法에 있어서도 片切彫의 刻花文으로 상호 교호는 유사성이 발견된다.

주요주요청자는 매우 섬세하고 예리한 수법을 보이는데 비해, 고려청자는 다소 둔박한 수법으로 장식되었다. 전자는 문양이 촘촘하고 딱 짜여진 모양이지만, 후자는 문양이 좀 성글게 배치되었다.

이와 같은 짧은 비교를 통해 보면, 초기의 월주요풍의 고려청자는 월주요청자와 거의 동일한 양식을 지니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요주요풍의 청자는 폭이 좁은 굽이라는 문양과 구도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세부수법에는 약간의 異質性이 드러난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 대해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越州窯風의 초기청자는 월주요에서 직접 製陶術을 익힌 陶工들이 우리나라 전라도 지방으로 渡來하여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월주요청자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요주요풍의 청자는 요주요도공의 직접 渡來에 의한 제작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수입된 요주요자의 도방품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sup>31)</sup>

한편 汝窯의 영향은 고려靑磁의 器形과 굽받침 등에서 발견된다. 汝窯式의 형태로는 托鉢이나 鉢 그리고 접시 등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으며 굽의 처리 즉 굽다리 안바닥에까지 施釉하고 흰 규석받침을 사용한 점은 뚜렷한 汝官窯의 굽형식으로 판단된다. (圖 13) 純靑磁에서의 陽刻蓮瓣文으로 外側面이 장식되어 있으며, 蓮瓣 끝에는 堆花點文이 아센트를 주고 있다. 굽안바닥에까지 깨끗이 유약을 입힌 후에 흰 규석받침을 세개 사용한 점은 汝官窯 특유의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汝官窯靑磁에서 사용한 아주 작은 받침보다는 크기가 크다.

이와 같은 굽받침형식은 고려 純靑磁에서부터 나타나며, 象嵌靑磁出現 이후에 더욱 유행하게 되고 고려 말까지 지속된다. 상감청자에서 나타나는 한 예로는 明宗 智陵出土의 靑磁鉢<sup>32)</sup>의 굽을 들 수 있다.

## V. 純靑磁와 定窯·景德鎮窯 白磁와의 比較

고려靑磁 盞, 접시, 花瓶, 鉢들은 「定器制度」를 모방했다는 『高麗圖

經』의 내용처럼<sup>33)</sup> 現存하는 많은 유물들은 중국 定窯와 관련을 시사해 준다. 고려시대 純靑磁의 器形과 文樣 중에는 五代와 北宋의 定窯白磁나 北宋代 景德鎮窯白磁와 유사한 예들이 있어 주목된다.

## (一) 定窯

定窯에 대한 조사는 一九三四年 葉麟趾가 『古今中外陶磁彙編』에서 定窯의 위치가 河北省曲陽縣剪子村에 있음을 제기함으로써 활성화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一九四一年 小山富士夫가 澗磁村窯址를 조사하기에 이르렀다.<sup>34)</sup>

定窯는 宋代의 五代名窯 중에 하나인데, 晚唐부터 窯業을 시작하여 五代・宋代에 걸쳐 세련된 白磁를 소성하다가 宋代 江西省景德鎮의 비약적인 발전에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된다. 定窯 초기인 晚唐에는 黃釉가 대부분이고 白磁의 수가 적었으나 五代에 들어서면서부터 白磁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五代 定窯白磁의 특징은 해무리굽, 直口의 盞, 花形盞이나 盞式류<sup>35)</sup>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五代 양식은 北宋代까지 계속되며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五代 양식은 보여주는 定窯의 編年資料로는 江蘇省連雲港市에 있는 王夫人墓로부터 吳의 太和五年(九三三年) 墓誌와 同伴한 白磁鉢, 白磁花形鉢, 白磁盒이 있고, 遼寧省赤峰市에 있는 遼衛國王 駙馬墓에서 遼의 應曆九年(九五九年) 墓誌와 同伴한 白磁盤口瓶, 白磁注子, 白磁瓶, 白磁花形鉢等이 있다. 이 가운데는 바다에 「官」字銘이 있어 定窯의 제품임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白磁도 있다. 이러한 定窯 백자들이 우리 눈에 친숙한 느낌이 드는 것은 그 기형이 우리의 高麗靑靑磁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文樣, 釉色, 燒成方法 등에서도 定窯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먼저 文樣面에서 살펴보면, 流麗한 刻花文, 耀州窯靑磁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상으로서 十二세기 초에 도입되는 押印文, 北宋代 특히 十세기末~十一세기 初에 나타나는 高浮彫의 蓮瓣文(圖 15)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유약을 보면, 定窯 초기에는 파르스름한 白磁釉였으나, 北宋代부터 定窯白磁를 상징하는 투명 혹은 반투명의 乳白色釉로 된다. 그리고 釉面에는 중국인들이 「눈물반점(淚痕)」이라고 하는, 유약 이緣에서 굽쪽으로 흘러내린 자국이 있다.

그리고 伏燒法이라는 특이한 방법에 의해 엮어놓고 구워내므로 口緣에는 釉가 없다. 따라서 거친 口緣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속테두리를 씌워야 했다. 이러한 口緣部처리는 定窯보다 조금 늦게 시작된 汝窯에서도 채택되었던 방식이다.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光宗이 하사품으로 사용했던 浙江省越州窯의 金鈎瓷鉢도 아마 定窯를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二) 景德鎮窯

景德鎮은 江西省饒州浮梁縣에 위치하여, 北宋 景德年間(一〇〇四~一〇〇七年)에 昌南鎮을 景德鎮으로 改名하면서 특징적인 靑白磁를 소성하였다. 靑白磁는 靑白色의 투명한 유약과 종이처럼 얇고 가벼우며 半透光性인 胎土로 이루어진 硬質白磁이기 때문에 그 명성이 높다. 중국의 많은 가마들은 경덕진의 靑白磁를 모방하였으며, 景德鎮窯는 越州窯나 定窯를 능가하는 광범위한 窯系를 형성하였다.<sup>36)</sup>

## (三) 純靑磁에 나타난 定窯・景德鎮窯樣式

前期의 고려 純靑磁에는 定窯와 景德鎮窯白磁의 器形과 文樣을 모방한 예들이 있다. 그러한 純靑磁들은 國立中央博物館所藏의 靑磁蓮瓣文鉢(圖 8), 靑磁牡丹文花形鉢(圖 10), 靑磁牡丹唐草文鉢, 그리고 靑磁花形鉢(圖 16) 등이고, 注子류로는 靑磁獅子鈕蓋注子 및 承盤(圖 17)과 靑磁水禽鈕蓋注子(圖 18) 등이다. 기타 靑磁九龍飾淨瓶을 비롯한 몇몇 淨瓶에서는 定窯白磁의 영향이 엿보인다.

靑磁蓮瓣文鉢(圖 8)은 外面底部로부터 口緣으로 향해 蓮瓣文이 삼중으로 겹쳐서 양각된 매우 특이한 施文수법을 보이고 있다. 중첩된 양각

연판문과 施文部位는 一〇세기 후반~十一세기의 北宋代 定窯白磁鉢 (圖 19)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의 越州窯 青磁唾壺(圖 9)에서도 胴部外面에 양각蓮瓣文이 유사한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양각연판문은, 一〇세기 후반에서 十一세기에 유행하던 장식문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青磁花形鉢(圖 10, 16)들은, 앞서 소개한 王夫人墓와 遼衛國王 駙馬 墓出土의 花形皿(圖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五代 定窯에서 유행하던 花形鉢의 양식과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五代양식은 北宋代의 耀州窯나 越州窯 그리고 汝窯등지에서 만든 도자기에 계승되었고, 그것이 다시 고려에 영향을 주어 고려 純靑磁에 흔히 나타나는 양식이 된 것이다. 그리고 圖 10의 青磁鉢의 內面전체에 施文된 활달한 문양과 花形을 이루는 기형 또한 定窯白磁鉢(圖 21)에 그와 유사한 예가 있다.

고려靑磁注子는 호리병형태, 거북·용 등의 동물형태, 죽순이나 대나무같은 식물형태, 그리고 人物형태 등 실로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와같은 고려특유의 동식물형의 注子가 아닌 것으로서 고려의 금속기를 祖形으로 한 注子가 있어 주목된다. (圖 18)이 注子는 十一세기 말에서 十二세기 초로 비정되는 것으로서 동물형상의 장식이 달린 뚜껑과 內底가 깊은 承盤까지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 注子들은 胴部·손잡이·注口·承盤의 형태에 있어서 중국宋代 白磁에 있는 注子들과 매우 흡사하다. 圖 18의 注子에 관해 崔淳雨는 고려 금속기를 祖形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그보다는 고려금속기의 형태가 이미 중국의 도자기에서 보여지므로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로는 河南省禹縣白沙鎮의 北宋後期에 속하는 地主 趙大翁의 墓壁 畫에 그려진 注子들을 들 수 있다. 이 彩色벽화에는 부부가 차마시는 장면, 연회장면 등이 묘사되어 있다. 이 장면 속에 있는 注子와 承盤의 그림은 (圖 21) 앞서 소개한 고려청자 注子들(圖 17, 18)의 祖形으로 생각되고 있다. ㉞ 이 그림 속의 注子들은 北宋代의 定窯나 景德鎮窯의 제품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圖 17의 承盤과 圖 18의 注子 胴部는 瓜形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五代에 유행하던 陶磁器의 한 양식을 계승한 것이며, 宋代 월주요 花形鉢 (圖 22)이나 安徽省出土의 靑白磁注子·承盤(圖 23)과 기본적으로 통한다고 보여진다. 注子에 보이는 瓜形과 접시·鉢 등에 나타나는 花形의 특이한 형태는 소위 五代양식으로서 定窯나 景德鎮窯의 白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日本 大和文華館소장의 동물장식이 있는 淨瓶은 매우 귀한 예이다. (圖 24) 이 淨瓶의 注口에는 龍頭장식이 있는데, 이러한 장식은 河南省 定縣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北宋前期의 淨瓶(圖 15)에서도 발견된다. 본래 중국에선 六朝靑磁서부터 注子의 注口를 龍이나 닭 등으로 흔히 장식했는데, 그러한 전통이 宋代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우리의 고려청자 陶工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것 같다. 그런데 고려청자장병은 定窯 白磁에 비해 그 장식수법이나 器形 등에 있어 훨씬 세련미를 더하고 있어 고려청자 절정기의 고려화된 특징이 한껏 발휘된 예라고 생각된다.

고려시대 純靑磁연구에 절대적인 존재는 仁宗(재위...一二三~一四六年) 長陵出土의 靑磁瓜形瓶이다. (圖 25) 이 瓜形瓶은 아름다운 翡色에 화려내리는 섬세한 曲線美로 고려청자 절정기의 作品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瓶의 胴部는 앞서 五代양식이라고 한 瓜形이면서도 보다 그 형태가 뚜렷해졌다. 그리고 口部에서 굽에 이르기까지의 器形은 宋代 景德鎮窯의 靑白磁 가운데서 그 유례가 있어 주목된다. (圖 26) 이 경덕진요의 청백자병은 개성부근의 고려시대 古墳에서 出土한 것인데, 우리 靑磁에 비해 口部가 강하게 外反되었고 굽다리도 날카롭게 처리되었다. 그리고 瓜形의 胴部도 과장된 量感을 지니고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 靑磁와 같은 유형이라 할지라도 중국도자와 고려도자가 지니는 각기 다른 美感을 느끼게 된다.

고려 純靑磁의 代表的인 기형을 가운데 하나는 梅瓶이다. 梅瓶도 다른 기형들과 마찬가지로 十二세기 전반에 고려적인 특징을 지니게 되지만, 그 이전에는 定窯와 景德鎮窯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肩部에서

볼록한 腹部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좁아지는 바닥에 이르는 전기의 매병은(圖 4)、細部수법의 차이는 있다해도, 宋代 초기의 靑白磁梅瓶과 유사하다. 그러나 定窯白磁梅瓶(圖 27)의 예에서와 같이 底部가 급격히 좁아는다는가 혹은 어깨가 너무 처진다든가 하는 형태는 없고, 중국의 매병의 비해 어깨에 다소 힘이 들어가 있고 고려화될수록 어깨는 더욱 볼록하게 팽만된 형태로 된다.

## VI. 結 論

고려시대의 도자기는 개방적인 민족성으로 인해 발생기부터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므로 고려 초기에는 중국도자기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양식을 지닌 청자들이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 중기 이후로는 종래의 개방성이 폐쇄성으로 바뀌어 중국과의 교류는 적어지고 이러한 경향은 고려 말까지 계속된다. 이 와 같은 역사적인 상황은 고려자기와 중국자기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본다. 즉 兩者の 양식 비교와 文獻에 나타난 兩者의 관계 등을 통해 당시의 時代相과 도자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고려시대 前期의 純靑磁는 절강성 越州에서 製陶術을 익힌 우리나라 陶工들에 의해 九세기 전반부터 월주요풍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월주요풍의 발생기 청자의 존재와 함께 중국도자기의 수입은 약 一〇세기 전반까지 병행된다고 사료된다. 그 후 고려 純靑磁는 釉胎 器形, 장식, 굽의 형식과 반침사용 등에 있어 耀州窯, 汝窯로 대표되는 北方靑磁와 定窯, 景德鎮窯의 白磁의 영향을 받으면서 十一세기 후반 ~ 十二세기 전반에 걸쳐 절정기에 달한다. 요컨대 고려시대 초기부터 절정기까지의 純靑磁에는 前述한 中國窯들의 양식이 混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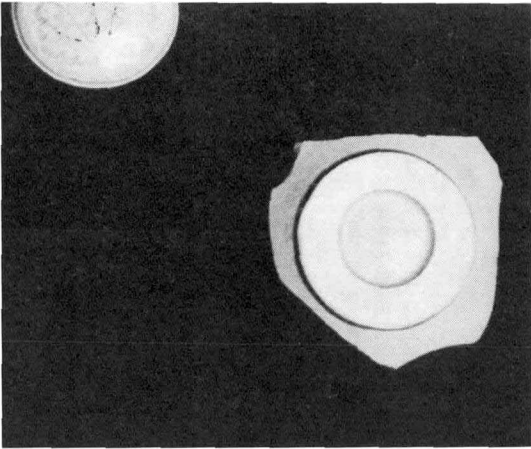
절정기의 청자는 중국도자기의 부단한 영향 속에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고려 특유의 翡色과 세련된 曲線으로 조형된 아름다운 器形을 갖추게 된다. 象形靑磁에서 등장하는 여러 동물과 식물의 형태와 象嵌靑磁의

出現·유행은 중국에서는 그 유행을 찾을 수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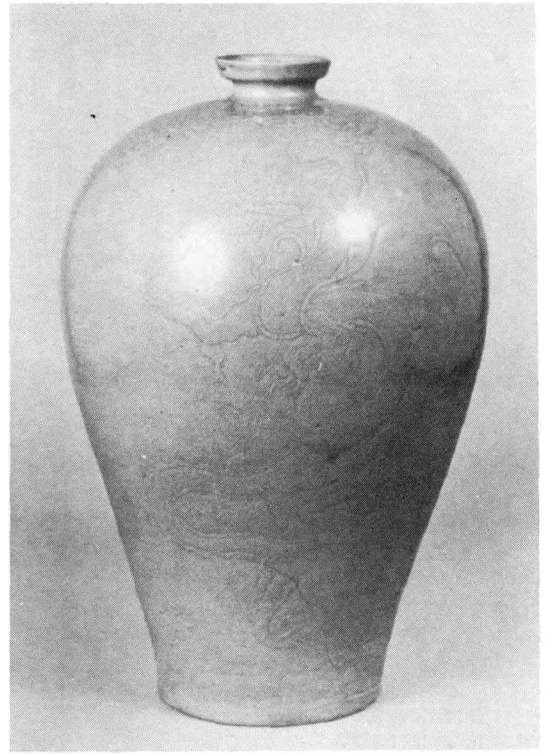
[註]

- ① 崔淳雨, 「高麗陶磁의 編年」 『國寶』三, 靑磁·土器, 藝耕産業社, 一九八三.
- ② 鄭良謨, 「靑磁象嵌발생의 側面的 考察」 앞의 책.
- ③ 鄭良謨, 앞의 논문, p. 197.
- ④ 金載悅은 그의 논문에서 綠靑磁에 대해 매우 객관성 있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金載悅, 「高麗白磁의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碩士學位論文, 一九八七, pp. 66~69.
- ⑤ 三上次男, 「高麗陶磁의 起源とその 歷史的背景」 『朝鮮學報』 第九九·一〇〇輯, 一九八三.
- ⑥ 三上次男, 「朝鮮半島出土의 中國唐代陶磁とその 史的意義」 『朝鮮學報』 第八七輯, 一九七八.
- ⑦ 三上次男, 註 ⑤의 논문, p. 245.
- ⑧ 『舊唐書』 卷十六, 本記十六과 『唐會要』 卷八七 奴婢. 吉岡完祐의 「高麗靑磁의 出現」 『朝鮮學報』 第一一九·一二〇輯, 一九八六, p. 289에서 재인용.
- ⑨ 吉岡完祐, 앞의 논문.
- ⑩ 三上次男, 註 ⑤의 논문, pp. 248~249.
- ⑪ 『高麗圖經』 卷第三九二 器皿三.
- ⑫ 吉岡完祐, 앞의 논문, p. 289.
- ⑬ 三上次男, 註 ⑤의 논문, pp. 225~227.
- ⑭ 小山富士夫, 「高麗의 古陶磁」 『陶器講座』 第二卷, 雄山閣, 一九三七, p. 92.
- ⑮ 경북공내의 해진탐비의 碑文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高裕燮著 秦弘燮編譯 『高麗靑磁』, 三星文化財團, 一九七七, pp. 20~22.
- ⑯ 金載悅, 앞의 논문, p. 62. 우리나라 도자기에서 나타나는 해부리굽의 形式變化에 관한 상세한 考察은 金載悅의 앞의 논문, pp. 47~66 참조.
- ⑰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高敞雅山 泔水沒地區 發掘調査報告書」, 一九八五, p. 168.
- ⑱ 尹龍二, 「高麗陶磁의 變遷」 『問松文華』 陶磁部 VI, 靑磁. 韓國民族美術研究所, 一九八六, pp. 78~81.
- ⑲ 長谷部樂爾, 『日本出土の 中國陶磁』, 東京國立博物館, 一九七五.
- ⑳ 長谷部樂爾, 『世界陶磁全集』 一八, 高麗編, 一九七八, p. 36 설명 참조.
- ㉑ 註 ① 참조.
- ㉒ 矢部良明, 「宋代靑磁의 展開」 『世界陶磁全集』 一二 宋, 小學館, 東京, 一九七七, p. 219.
- ㉓ 『陝西銅川耀州窯』 陝西省考古研究所, 一九六五.

- ②3 矢部良明, 「晩唐 五代の陶磁」『世界陶磁全集』一一 隋・唐, 小學館, 京東, 一九七九, p. 270.
- ②4 矢部良明, 註 ②1의 책, pp. 219~222.
- ②5 出光美術館, 『近年發見の窯址出土中國陶磁展』, 一九八二, p. 89~95.
- ②6 長谷部樂爾, 「宋の官窯青磁」『世界陶磁全集』一二 宋, 小學館, 東京, 一九七七, p. 228에서 재인용。
- ②7 Margaret Medley, 金英媛譯『中國陶磁史』, 悅話堂, 一九八六, p. 149.
- ②8 佐藤雅彥, 『中國陶磁史』平凡社, 一九八二, p. 136.
- ②9 註 ②2의 보고서.
- ③0 註 ①1 참조.
- ③1 小山富士夫, 註 ②7의 논문, 여기서 小山은 耀州窯를 汝窯라고 잘못 소개하고 있다. 이는 一九三一年 河南省臨汝縣窯址에서 발견된 青磁片들이 耀州窯 양식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후에 이 青磁片들의 產地가 耀州窯인 이 밝혀졌다. 註 ②2의 보고서 참조.
- ③2 『世界陶磁全集』一八 高麗, 小學館, 一九七八, p. 161, p. 145, 146 참조.
- ③3 註 ①1의 책 참조.
- ③4 小山富士夫, 「定窯窯址の發見に關して」『小山富士夫著作集』(一), 中國の陶磁, 朝日新聞社, 一九七九, pp. 385~437.
- ③5 『中國陶磁全集』九 定窯 美乃美, 一九八一, pp. 154~167.
- ③6 稜花形, 輪花形, 瓜形 등을 모두 蓮의 상, 花形이라 함.
- ③7 憑告銘, 「新中國陶磁考古的主要收穫」『文物』一九六五, 九, p. 42. 江西省吉安縣, 永和縣, 安徽省繁昌縣 등지의 가마들이 모두 景德鎮窯系이다.
- ③8 愛宕松男, 「宋代の文化と陶磁」註 ②1의 책, p. 154의 Fig. 17~20.
- ③9 구사편찬위원회, 『한국사』 7권, 『한국사』 7권, 全海宗 『韓國의 中國』 知識産業社, 一九七九, p. 4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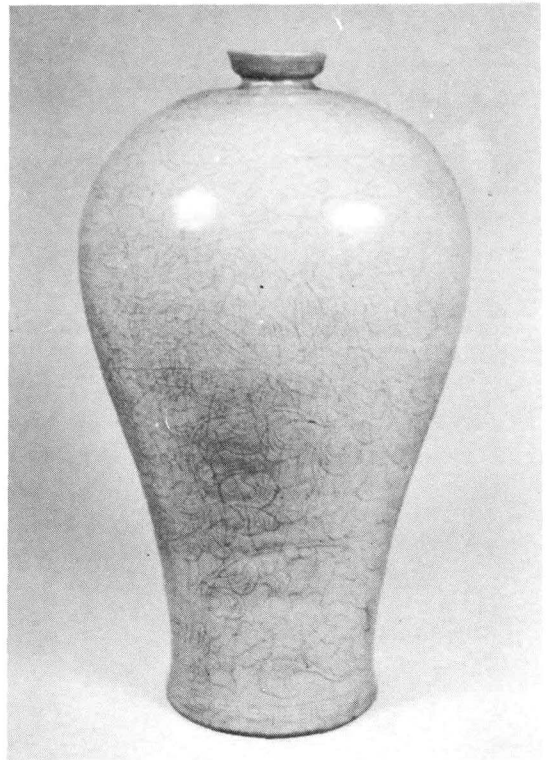
〈圖 1〉 해무리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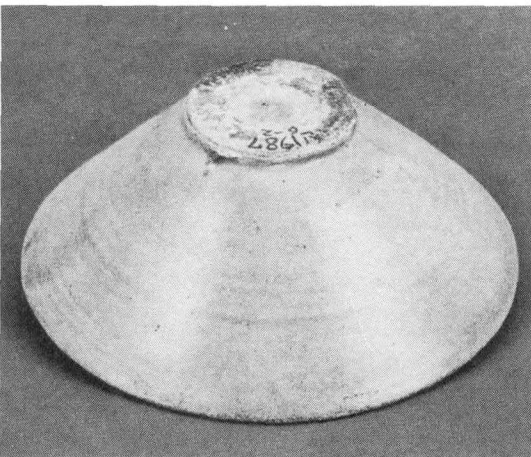
〈圖 4〉 青磁龍文梅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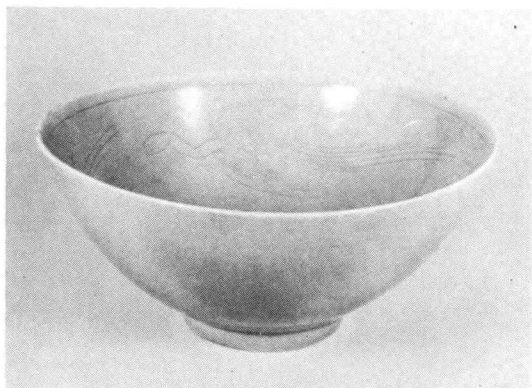
〈圖 2〉 國立博物館所藏 青磁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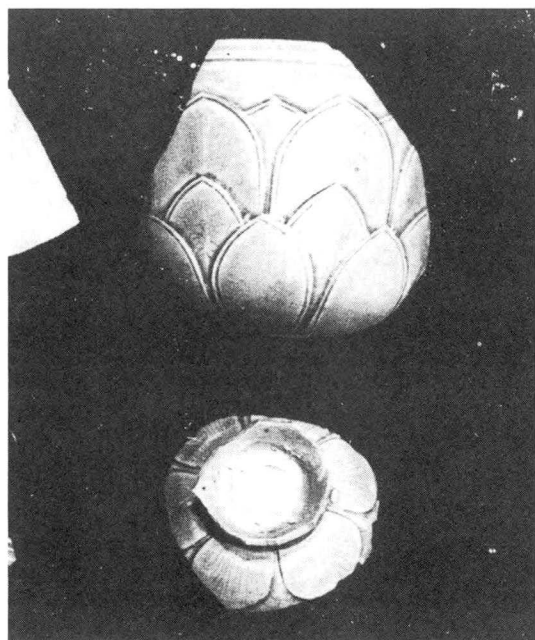
〈圖 5〉 蓮唐草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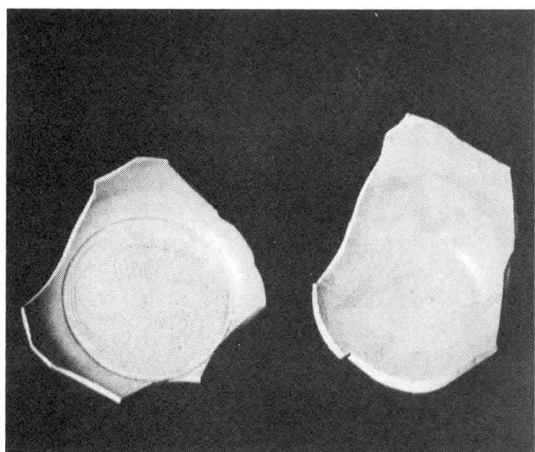
〈圖 3〉 高麗白磁盃



〈圖 6〉青磁雙鸚鵡文鉢



〈圖 9-1〉五代浙江省鄞縣窯出土青磁破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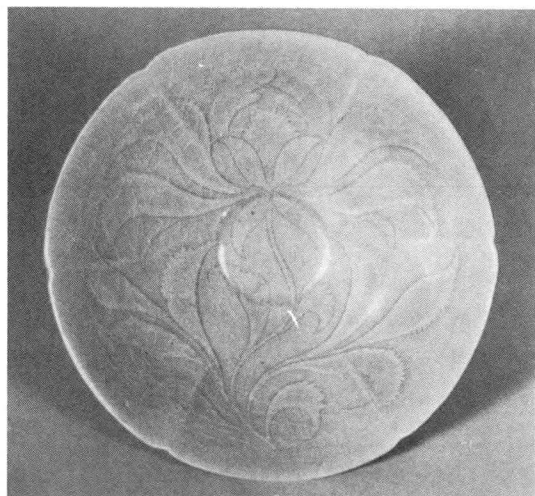
〈圖 7〉鸚鵡文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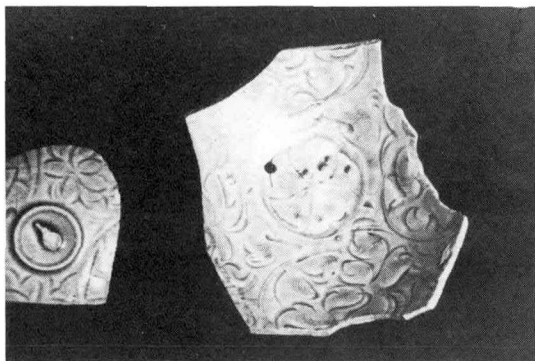
〈圖 9-2〉越州窯 青磁蓮唐草文唾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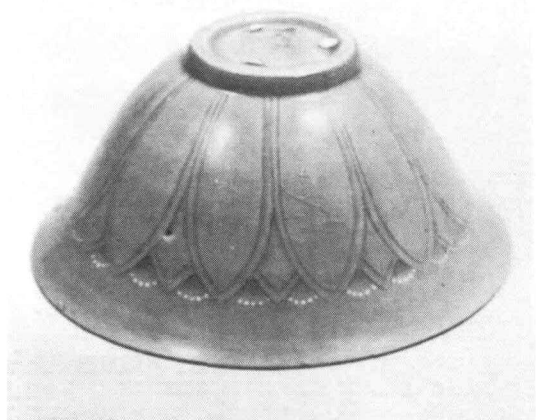
〈圖 8〉青磁蓮瓣文鉢



〈圖 10〉青磁牡丹文花形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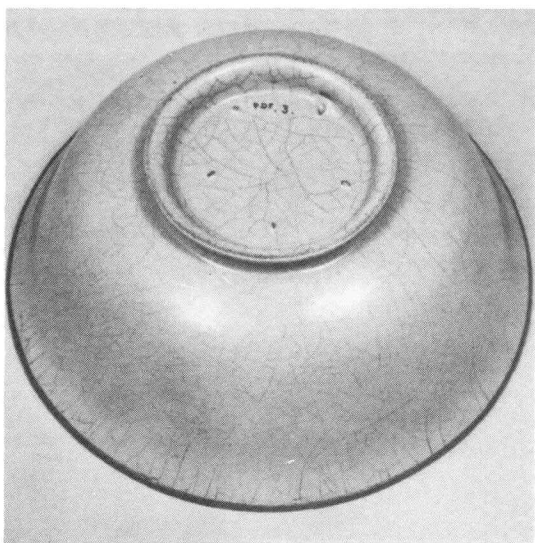
〈圖11〉浙江 黃岩窯出土 青磁刻花文盃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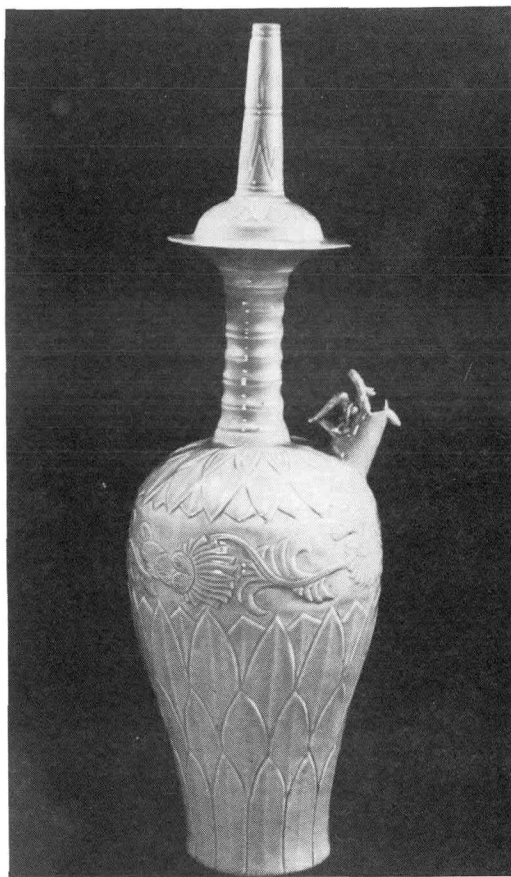
〈圖14〉青磁蓮華文鉢



〈圖12〉國博 青磁唐草文盃



〈圖13〉汝官窯 鉢형식



〈圖15〉北宋代 蓮瓣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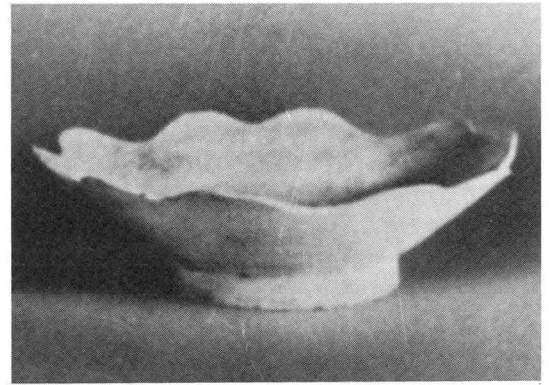
〈圖16〉青磁花形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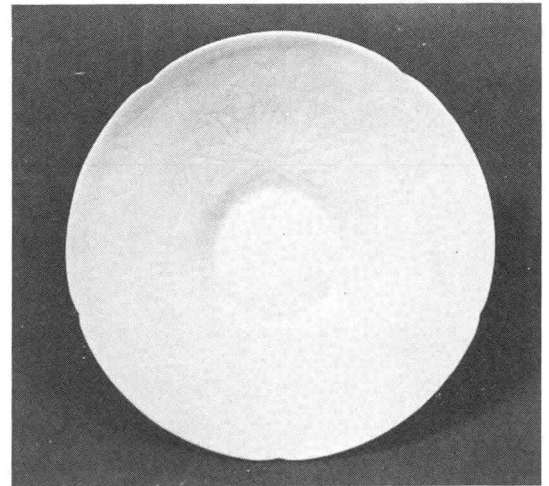
〈圖18〉青磁水禽鈕蓋注子



〈圖17〉青磁獅子鈕注子 與 承盤



〈圖19〉北京 定州窯 白磁鉢



〈圖20〉王夫人墓出土 花形皿



Fig. 20 右図  
畫中の水注



Fig. 19 白沙宋翠壁画『白沙宋墓』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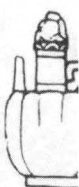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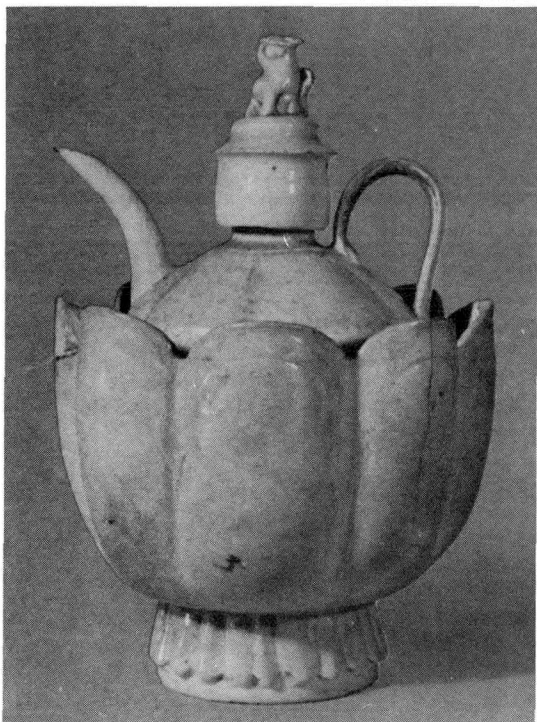


Fig. 18 右  
畫中の水

〈圖21〉定窯 白磁鉢



〈圖22〉宋代 越州窯 花形鉢



〈圖23〉安徽省出土 青白磁注子・承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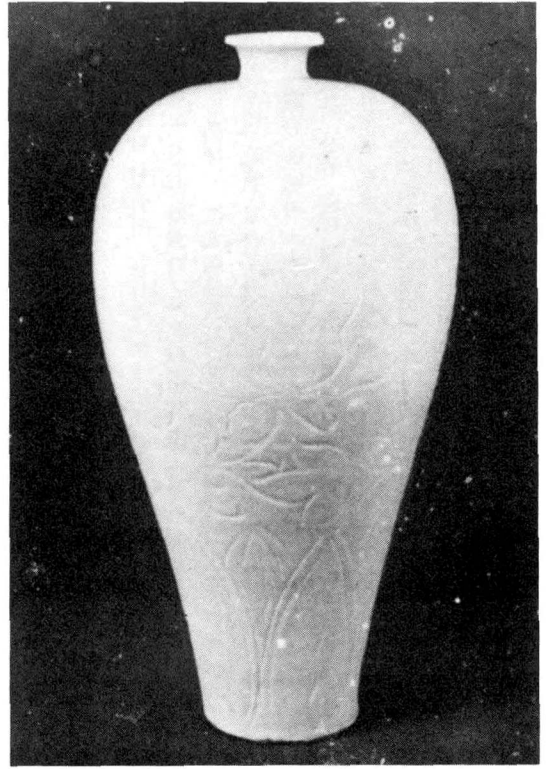
〈圖24〉大和文華館 淨瓶



〈圖25〉長陵出土 青磁爪形瓶



〈圖26〉宋代景德鎮窯 青白磁



〈圖27〉定窯白磁梅瓶